

기획특집

#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특구 지정

제주대 생명자원과학대 교수·제주승마산업 RIS 사업단 단장 강민수

경마 위주의 말 산업 정책에서 벗어나 우수마 생산 및 승마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말산업 육성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제주가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제주를 우리나라 말의 고향이다. 둘째, 제주마의 유전자원과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크다. 셋째, 10소장 등 마 생산 역사유적이 남아있는 지역이다

J E J U D E V E L O P M E N T F O R U M

## I. 환경 변화와 말 산업 현황

### 1. 근래 농어촌을 둘러싼 환경 변화

FTA 등에 따른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 미개척 분야인 말 산업을 농가 신 소득원으로 육성 필요 대두되고 있다. 말산업은 국민소득 증가와 연계, 성장 잠재력과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융복합산업이다. 일본의 경우 국민소득 2만불 달성시점(89) 이후 승마인구가 89% 증가하였다. 전체 축산농가 중 말 사육농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겨우 1.6% 수준에 불과하다.

\* 말 사육농가수(가구,%) : {00} 520(0.7) → ('07) 1,291(1.6)

전 세계적 환경 위기와 저탄소 정책에 따라 기존 축산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말은 반추동물인 소나 산양 등 타 축종에 비해 분뇨배출량이 적고, 분의 경도가 높아 환경오염이 아주 적은 친환경 축종이다.

\* 100kg당 분뇨배출량 : 말 4.2kg, 젓소 10.1kg, 돼지 14.3kg, 닭/오리 12kg

\* 분의 경도 : 말 +++ , 젓소 ± , 돼지 - , 닭/오리 +

4대강 살리기와 연계,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승마를 매개로 한 웰빙승마관광사업 참여수요 확산 고 있다. 농업관광, 도농교류의 장으로 활용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현재 20여개 시·도 및 단위 지자체에서 참여 또는 검토 중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족에게 건강을, 농어촌에 활력을, 국민에게 여유를! 말산업은 건강사회로 이끌어 재활회복의 Well-being산업이다. 말과의 교감을 통해 생명 자연 사람을 전파하고, 기계문명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 청소년의 심신회복의 계기를 제공한다.

또한 풍요로운 농어촌사회를 만들어가는 활력산업이다. 축종전환 관광활성화를 통한 신규 소득 창출로 지역·도시와의 교류촉진 및 전문 일자리 창출로 농어촌 신규 인력을 유입할 수 있다.

고소득시대에 부합하는 녹색레저산업이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넘어 3만불 시대의 레저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게 말산업이다. 농촌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개인의 스포츠가 아닌 가족단위로 즐기는 체험레저가 가능하다

## 2. 말 산업 현황

말 사육 및 소비 현황을 보면 1천 3백 농가(내륙 4백, 제주 8백)에서 25천두 사육('07년말 기준)되고 있다. 경주마는 181가구에서 연간 1,300여두 생산('08년 기준)되고 있는데, 경주마 생산전문 목장은 2개소(마사회), 전문육성조련시설은 6개소(농가 5, 지자체1<함안>)이다

\* 경주마 생산농가 : ('91) 8호 → ('06) 142 → ('08) 181

승용마만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농가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경주 미활용마나 조랑마를 활용하는 실정이다.

개량종은 대부분 경주마에 활용되며, 재래종은 경주용(제주)으로 일부 활용되고 대부분 승마, 관광, 식용으로 활용된다. 경마용의 경우 경주마 2,700두, 번식마 2,100두, 육성마 2,300두, 시험·교육마 300두 등이며, 승마용의 경우 경주퇴역마 2,000두, 조랑마 2,000두, 기타 1,000여두, 식용의 경우 대부분 재래종으로 연간 약 700여두 도축되고 있다.

## II. 특구 지정 필요성

말 산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경주마 생산 증장기 사업 종료('91~'06)됨에 따라 새로운 정책방향의 제시가 필요하다.

경주마 자급률 75% 등 양적 목표는 달성하였으므로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한 우수마 생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마에 따른 말 수요는 한정되어 있어 규모 있는 산업으로 성장하기가 곤란하다

\* 경주마 수요는 매년 800여두 수준

승마 활성화 및 말을 이용한 공익적 기능 확대를 통해 경마에 치우친 국내 말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 사감위의 경마규제 정책으로 축산발전기금 등 말 산업 육성 및 농가지원 자원 조달 차질 우려된다.

\* 사감위 규제정책 실현 시 축산발전기금 등 출연규모는 약 1/3로 축소될 전망

“단순히 보고 즐기는 대상”에서 벗어나 “직접 타고 즐기는 대상”으로서의 말 활용 욕구에 부응할 수 있다. 운동 및 레저·관광수단, 장애인 재활치료, 청소년 체육활동 및 정서순화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

승마는 생산 및 육성, 유통, 소비(레저, 관광)에 이르는 전 과정이 농촌 중심으로 이루어져 침체된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경마 위주의 말 산업 정책에서 벗어나 우수마 생산 및 승마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말산업 육성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제주가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제주는 우리나라 말의 고향이다. 둘째, 제주마의 유전자원과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크다. 셋째, 10소장 등 마 생산 역사유적이 남아 있는 지역이다.

## III. 사업개요

### 1. 추진근거 및 주요내용

말산업 특구 지정의 법적근거말산업육성법(9. 10. 시행)으로 말산업 특구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21조)에 나타나고 있다.

주요내용은 말산업의 친환경 녹색 고부가 산업 육성전략이다.

- 비전 : 말-자연-문화가 함께하는 국민공감 웰빙산업 육성
- 추진사업 : 4개 분야 50개 실천과제 수립
  - 경마산업 : 2대 정책방향, 14개 실천과제 수립
  - 승마산업 : 2대 정책방향, 13개 실천과제 수립
  - 마육산업 : 3대 정책방향, 11개 실천과제 수립
  - 연관산업 : 3대 정책방향, 12개 실천과제 수립
- 투자계획 : 2,200억(국비 650억, 도비 816억 등)

## 2. 산업별 추진 세부내용

### 1) 1차산업

- 마필생산센터(연구소와 생산농가 연계)
- 비육센터(연구소와 생산농가 연계)
- 말유전자은행(제주대학교 마필연구센터와 생산농가 연계)

### 2) 2차 산업

- 경주마트레이닝센터(공동조련시설사업)->1세마 이후의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통해 우수 경주마 생산 및 위탁관리, 휴양사업
- 승용말 육성 트레이닝센터 - 생산농가에 암말무상지원 등을 통해 생산된 망아지 활용
- 체계적인 조련을 통한 승용마인증제 실시

### 3) 3차 산업

- 관광(기존 관광승마장 시설지원, 올레길 과 마로의 연계)
- 승마(승마장시설 및 선수확충, 각종 대회유치, 승공승마등 새로운 승마산업보급)
- 재활승마센터(도내 병원과 연계, 제주대학교 재활승마아카데미)
- 마필인력양성센터(마필관리사, 조련사, 승마전문교관 및 선수양성,마필산업 해외마케팅 전문인력양성 -> 제주대학교 마필산업과)
- 마문화 박물관(공연, 케이블방송, 축제 캐릭터, 게임 등 마문화 콘텐츠 생산 및 홍보 그리고 체험교육 등 마문화산업 발굴)
- 말테마 공원
- 힐링마치료센터

## IV. 기대효과

첫째, 말 사육기반 확충 및 승마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된다. 말 사육 두수 현재 3만두에서 16년에 5만두, 농가수 1900여호에서 3000호, 승마장수 300개소에서 50개소, 승마인구가 2만5천명에서 5만명으로 증가, 건전 경마시행으로 재정기여도 연간 1조5천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둘째, 경마중심 말 산업의 문제해결을 통한 건전한 신소득 창출산업 육성효과가 기대된다. 승마, 말고기 식품, 연관산업 등 기타산업의 동반성장 기반 마련한다.

셋째,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의 말과 자연, 역사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품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넷째, 한국 말 산업을 견인하는 리더로서 제주 말산업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 말산업 특구 제주유치를 통한 국가 말 산업 전진기지 역할수행을 도모할 수 있다.

## V. 결론

말산업은 블루오션 신 성장동력산업으로 국민들로부터 주목 받고 있다. 말 산업은 1차산업의 기간산업으로서 농촌을 풍요롭게 하고, 자연을 깨끗하게 하며, 국민을 건강하게 하고,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말산업육성법에 시행에 의한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게 되면 다양한 세제혜택과 국공유지의 무상 혹은 저렴한 임대 등 많은 특혜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자체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특구 유치에 산학연관 및 도민들의 지혜와 힘을 한데 모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므로써 반드시 유치 성공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마산지로서의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오랜 마산의 역사와 마문화의 자긍심을 높이며, 우리나라 말산업의 육성 발전을 이루는 전진기지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확실히 다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JDI**

## 참고문헌

- 농수산수산물부. 2009. 7. 농어촌 신소득원 창출을 위한 말 산업 발전 방안
- 농수산수산물부. 2012. 7. 17.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발표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1. 12.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5개년 계획
- 강민수. 2010. 3. 27. 서귀포신문 “마필산업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발전”
- 강민수. 2011. 5. 14. 서귀포신문 “녹색자원 ‘三馬一職’의 고부가 마필산업”
- 강민수. 2011. 10. 1. 서귀포신문 “말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 강민수. 2012. 4. 28. 서귀포신문 “관광객 1000만시대 승마가 떠오르고 있습니다!”